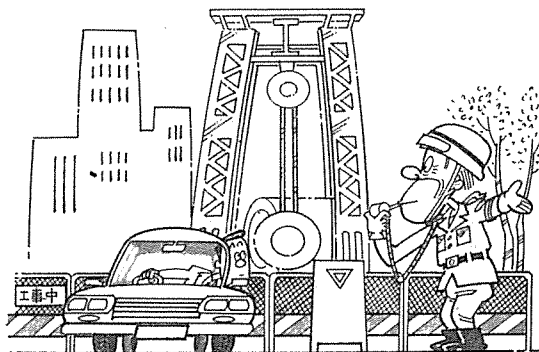


공공질서 지키며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1)



1. 공공질서란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 혼자 살고 있다면 샘물을 뜨기 위해 차레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등을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사람의 이웃만 생겨나도 다음에 쓸 사람을 위해 샘터를 깨끗이 치우고 차레를 기다리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세상에서 서로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자기 욕심을 양보해서 밝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자고 만들어낸 슬기로운 약속이 공공질서이다. 크게는 나라의 법규에서부터 작게는 집안에서 가족끼리 지키는 규칙까지 서로 잘 지켜서 잘 살아보자고 만든 크고 작은 규칙들이 공공질서이다.

2. 안전사고란 무엇일까?

불의의 사고중 특히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부주의하여 생기는 상해나 사망을 말한다. 고의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안전사고, 과연 문제인가?

그렇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과 사망률을 보면 문제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91년도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통계 연보에 의하면 손상 및 중독에 의한 사망자수가 31,261명이었고 이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 13,936명, 익사 1,799명, 중독사고 1,686명이었다.



우리나라 남자의 경우
암에 이어 불의의 사고가
사망원인 제2위이고
연령별로 보면
1~39세까지의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의사, 추락 등의
불의의 사고가 제1위이다.

교통사고는 한국(38.2), 포르투갈(29.6), 소련(27.0)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고 이웃나라 일본은 12.9로 우리나라의 1/3도 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이외의 불의의 사고도 구소련 사망률은 보통 인구 10만명당으로 숫자 표시를 하는데 암으로 인한 사망 105.3, 뇌혈관 질환 72.6에 이어 각종 불의의 사고 사망이 72.2로 3위를 차지하였다. 남녀에 따라 달라서 남자는 암에 이어 불의의 사고가 사망원인 제 2위이고, 연령별로 보면 1세~39세까지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의사, 추락 등의 불의의 사고가 제 1위이다.

사고로 인한 사망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90년 통계)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많다. 이것은 사고로 인한 사망수를 본 것이지만 사고로 인한 크고 작은 부상건수가 얼마나 많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사고는 아니지만 개인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손실을 가져오는 안전사고가 가정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몇개의 연구조사에서 5%~20%의 인구가 적어도 1주일

이상의 불편을 겪는다고 밝혀졌다.

특히 1세~9세 아동과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추락, 화상, 자상, 감전, 중독 등의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산업현장은 물론이고 즐거움을 찾아서 나서는 운동이나 야외활동에서 조차도 안전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

4. 안전사고는 왜 일어날까?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가스시설 폭발로 대형화재가 났다, 새로 지은 아파트가 무너졌다, 지반이 내려앉아서 열차가 탈선하였다, 정원 초과 선박이 전복되었다는 등 우리를 슬프고 놀라게 했던 많은 대형참사들은 안전규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발명해낸 교통수단, 생활도구, 상업기계를 안전기준에 맞게 만들어내고 안전규칙에 맞게 이용하여야 비로소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다. 작은 방심을

쌓아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실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5. 안전사고, 어떻게 예방하여야 하나?


(1) 공공질서의식, 안전의식을 키우고 규칙지키기를 체질화 한다. 나혼자 외롭고 두렵지 않게 함께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을 고마워 하자. 아울러 땅, 공기, 물, 동물, 식물 등 나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터전이 되고 지켜주고 먹여주는 모든 이(물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사랑하자. 이것이 질서의식의 기본이 될 것이다.

양보하고 주는 것은 빼앗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과 여유를 얻고 누리는 이길 사람이라는 삶의 진리를 기억하자. 나 아닌

내 가족을 사랑하고 아낌에서 나 개인의 평안과 행복이 오듯, 내 가족에 앞서 나의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고 위험에서 큰 평안과 행복이 오는 것을 생각하자.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고 공공질서, 안전규칙 지키기를 습관으로 길들여 가자.

부모가 자녀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실행하여 모범을 보여 줌으로써 질서와 안전규칙을 지키는 의식을 체질화 하자.

(2) 공공질서 지키기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배우고, 실제로 익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생활안전, 가정내 안전, 산업안전 등을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배울 수 있고 생활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계속) 

건협 검진자 불편 상담전화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전화로 들려 주십시오

◎이용전화 : 080-024-8572(수신자부담)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1097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자 불편상담소 앞
(157-016)